

남성해운

산토우 서비스 개시

남성해운(회장 김영치)이 지난 7월 5일부터 산토우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산토우 서비스는 주 1항차로 매주 월요일 산토우를 출항한다. 운항구간 산토우(월~화) - 인천(금) - 부산(일)순이다.

이에 남성해운은 “운항 선사중 가장 짧은 TRANSIT TIME을 제공함으로써 대화주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산토우 서비스에 투입되는 선박은 700TEU급 2척으로 ‘LIBERTY STAR’ 호와 ‘BOHAI STAR’ 호가 투입될 예정이다.

대한통운

중량물 전용선 2척 발주

F 15,000 DWT HEAVY CARGO

JUNE 11, 2010

CO., LTD. MJIN SHIPB... NG INDUS



대한통운(사장 이원태)은 중량물 해상운송능력 강화를 위해 중량물 전용선 2척을 지난 6월 14일 발주했다.

대한통운에 따르면 이 전용선은 각각 전장 152.5미터, 폭 40미터로 1만 5천 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자체 항행능력을 갖고 있다. 플랜트, 조선 및 건설 기자재 등 무게가 수천 톤에 이르는

대형 중량화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게 된다.

대한통운은 멀티모달트레일러와 중량물 전용선박 등 특수장비와 전문인력을 통해 이 부문에서 독보적인 사업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그간 육상과 해상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중량물 운송사업을 전개해왔다.

한편 이번 전용선 2척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해상운송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대한통운은 내년 하반기에 이 배들을 인도받을 예정이다.

STX팬오션

6700대급 자동차선 인수

STX팬오션(대표이사 이종철 부회장)은 6월30일 자동차전용운반선 'STX CHANGXING ROSE' 호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STX CHANGXING ROSE호는 STX팬오션이 지난 2007년 발주한 총 4척의 자동차운반선 가운데 첫 번째로 인수되는 선박으로 길이 199미터, 너비 32미터, 높이 52미터의 제원에 6천700대의 차량이 한 번에 선적 가능하다. 이 선박은 인수 후 자동차 전문 운송기업인 유코카캐리어(EUKOR car carriers Inc.)에 대선 될 예정이다.

STX팬오션은 70년대 초 자동차운반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6,500대급 PCTC 2척과 4,900대급 PCTC 2척을 포함해 총 5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으며, 6700대급 신조선 3척이 현재 건조중에 있다.

한편 이번 선박 인수로 STX팬오션은 사선 80척을 포함 총 460여척의 선대를 운용하게 됐다. 80척의 사선은 벌크 47척과 탱커 20척, 컨테이너 8척, 자동차전용선 3척, LNG전용선 1척, 헤비리프트 1척 등 비벌크선박 33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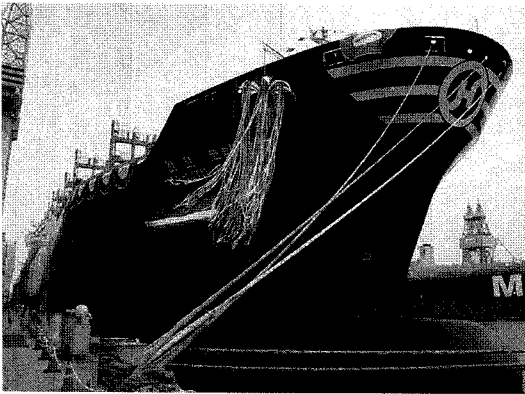
또한 STX팬오션은 지난 6월22일 STX팬오션은 장기 운송계약 수행을 위한 선박확보를 위해

컴사르막스급 벌크선 등을 건조한다고 공시했다.

선박 건조시 투자금액은 1,659억3,184만원으로
선박 인도 시점은 2012년이다

한진해운

국내 최대 1만TEU 컨선 인수



한진해운(사장 김영민)이 국적선사로는 처음으로 1만TEU급 컨테이너선인 '한진 코리아 (HANJIN KOREA)'호의 본격 운항을 알리는 명명식을 개최했다.

6월23일 오전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개최된 명명식에는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 및 김영민 사장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최장현 차관, 삼성중공업 노인식 사장, 배석용 조선소장 등 관련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선박은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를 약 1만개를 실을 수 있는 축구장 3개 반 규모의 초 대형 선박으로, 7월 초부터 아시아-유럽 항로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명명식 스폰서로 나선 최은영 회장은 "1988년 '한진 시애틀호' 명명을 시작으로 '한진 코리아' 호까지 지난 20여년 동안 총 39척의 선박에 이름을 부여했지만, 이번 명명식은 한진해운과 한국 해운사에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이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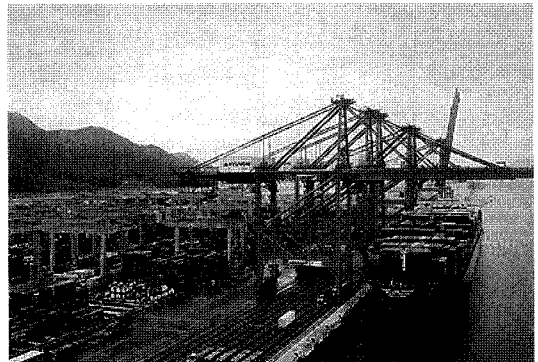
만 TEU 급 대형선 투입으로 글로벌 선사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 코리아(HANJIN KOREA)호는 초대형 선박에도 불구하고 선속 조정 등이 용이하고 연료소모량이 적은 최신 친환경 전자제어엔진을 탑재한 경제선박으로, 한진해운이 발주한 10,000TEU급 5척 중 첫 번째로 인도받는 선박이다.

한진해운은 현재 6,000TEU급 이상의 대형선박을 주력으로 100여 척의 컨테이너 선박을 전세계에 운영하며 운항 정시성 준수, 대 고객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환경 보호 운동에 발 맞추어 선박의 경제 속도인 에코 스티밍(Eco-steaming)을 준수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환경 보호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편, 나머지 2~5차선은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이다.

현대상선

부산신항 현대상선터미널 개장



현대상선(사장 김성만)은 6월22일 '현대상선 부산신항터미널' 개장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로써 현대상선은 2002년 부산 감만 및 자성대 터미널을 매각한 지 8년 만에 다시 부산에 자체

터미널을 갖게 되었다.

이날 개장식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성만 현대상선 사장을 비롯한 현대상선 임직원들과 정운찬 국무총리, 최장현 국토해양부 차관, 허남식 부산시장, 김태호 경상남도지사 등 국내외 정·재계인사 및 주요 화주 1,000여명이 참석했다.

현 회장은 개장식사에서 “1974년 부산에 첫 컨테이너 항만이 생긴지 36년만에 부산항이 세계 5대항만으로 거듭났다”며 “현대상선 부산신항터미널도 동북아물류의 허브, 세계의 중심항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 부산신항터미널은 현재 현대상선, 일본 MOL, 싱가포르 APL 등 TNWA(The New World Alliance) 소속 선사들을 비롯해 독일 하팍로이드(Hapag Lloyd), 프랑스 CMA-CGM 등 10여개의 선사들이 기항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항만 세일즈를 통해 총 30여개의 선사를 유치해 동북아 중심 허브항만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상선 부산신항터미널은 신항 남컨테이너 터미널에 위치한 2-2단계 터미널로 지난 2006년부터 2,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이날 개장한 것이다.

이 터미널은 안벽길이 1.15km, 총면적 55만㎡(16.7만평), 수심 17m로 1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최첨단 항만기술 및 IT시스템 적용으로 높은 생산성을 자랑한다.

먼저, 선박이 항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자동화 야드크레인 36기와 40피트 컨테이너 2개 또는 20피트 컨테이너 4개를 동시에 들어 올릴 수 있는 탠덤(Tandem) 크레인 11기를 도입했다. 특히, 야드크레인은 무인자동화로 24시간 운영 돼 빠르고 안정적인 컨테이너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화 게이트를 설치, 터미널을 오고가는 컨테이너 트럭 입·출입 시간을 최소화해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터미널 내에 On-Dock 서비스와 수리장, 세척장, CFS 운영 등 최고의 복합물류 항만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최첨단 시설 때문에 현대상선 부산신항터미널은 부산항에서 단일 선사로서는 가장 많은 연간 20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현대상선은 미국의 WUT(Washington United Terminal), CUT(California United Terminal), 대만의 KHT(Kaohsiung Hyundai Terminal) 등 자영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부산신항터미널 개장을 기점으로 항만물류 사업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상선은 2013년 현대 로테르담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개장을 앞두고 있다.

양현재단

친항만정책 연구지원 계약체결



양현재단(이사장 최은영)은 6월 4일 중앙대학교 동북아물류유통연구소와 ‘국적선사의 친항만관리정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 수립’에 관한 연

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현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구용역은 주요선진국의 친환경 항만관리 전략과 이용선사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항만정책에 반영될 내용과 국적선사의 장단기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총 7개월 동안 진행된다.

연구결과는 올 12월 연구결과 발표회를 통해 다양한 관련 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양현재단은 해운물류분야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 금융 지속 성장 전략 연구, 북극해 변화와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물류정보보안과 그린IT 분야와 관련, 지문인식보안솔루션과 항만LED 조명을 선보이면서 관련 업단체로부터 높은 관심을 유도한 것은 물론, UN/CEFACT포럼, IMO회의 참가 등을 통해 글로벌 물류 정보화 기술 선도에도 적극 나서는 등 물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케이엘넷은 지난 2009년 '제 21회 뉴미디어대상'에서 항만물류정보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온 공로로 전문기업부문 기업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케이엘넷
'물류정보기업 부문' 대상 수상

한국선급
창립 50주년 녹색경영 원년 선포식



케이엘넷(사장 박정천)은 지난 6월3일 세종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로지스틱스학회 2010 춘계학술대회 및 제 13회 한국로지스틱스 대상'에서 물류정보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케이엘넷은 물류관련 업단체를 대상으로 e-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항만물류통합정보시스템인 프리즘(PLISM)과 컨테이너터미널운영정보시스템인 아톰스(ATOMS) 등이 있다.

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은 지난 6월 17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KR 창립 50주년 기념 녹색경영 원년 선포식'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오공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선급이 감격스러운 50돌을 맞이했다"며 "지난 1960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선박기술의 주권확보와 우리나라의 선박 안전을 위해 단 2명의 선박검사원으로 출발한 한국선급이 현재 7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세계적인 선급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오공균 회장은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 속에 살고 있다”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주도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한국선급의 창립 50주년을 새로운 도약의 기점으로 삼아 시대가 요구하는 친환경 녹색 성장에 발맞춰 초 일류 선급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포부를 내비쳤다.

또한 오공균 회장은 “향후 50주년을 대비하여 3G를 추진할 것”이라며 3G로는 Green standard, Green technology, Green community라고 밝혔다.

오공균 회장은 “3G를 통해 친환경 Green standard를 설정하고, 친환경 미래를 위해 해상 풍력, 해양에너지를 선박에 이용하는 Green technology를 활용할 것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Green community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해양부 최장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50년 동안 한국선급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 비약적 발전을 했다”며 “세계 7위의 선급으로 연간 수입 1,200억원이 넘고 등록톤수도 4,000만 톤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장현 차관은 “2020년 세계 선급 순위 5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달성을 위해 적지않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선 교육훈련을 통한 기술의 고도화, 신성장 사업 극대화, 글로벌 조직문화의 형성과 발전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내외 협력 또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장현 차관은 “정부는 해운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위해 선박금융의 선진화, 글로벌 해운기업 육성, 해운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대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조선 분야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듯이 해운산업 또한”고 밝힌 뒤 정부도 우리나라가 해운강국이 될 수 있도록 야심찬 계획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

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진방 회장은 “1960년은 한국해운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해”라며 “한국선급과 한국선주협회는 같은 날 출범하여 해운토양이 황무지 같았건 그때, 열정과 신념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진방 회장은 한국선급의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오늘날 세계적인 선급으로 발전한 한국선급이 세계적으로 기술력 인정받고, 세계 5대 선급으로 발전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선급의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방한한 일본해사협회 노보루 우에다 회장은 “한국 선급이 1960년 설립된 이래 해상운송에 있어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선급 중의 하나로 성장했다”며 “아시아 선급으로서 한국선급의 엄청난 업적을 확인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에다 회장은 “선급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함께 하고 있다”며 “아울러 한국 선급은 국제선급연합회 안에서 국제선급연합회의 공통 구조인 규칙제정에 있어 핵심 역할 수행한 기관”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우에다 회장은 “한국선급은 국제적인 선급을 넘어 아시아선급 협회 가운데 새로운 그룹을 형성해 아시아 선급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리라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선급의 창립 50주년 기념하고 녹색경영의 원년 선포식이 개최됐으며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증정식 행사 또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갑숙·김상진·정현세 前 한국선급 회장, 한국선주협회 이진방 회장, 국토해양부 최장현 차관, 김성곤·장광근 국회의원, 김성진 前 해양수산부 장관, 일본해사협회 노보루 우에다 회장, 대한해운 김창식 사장, SK해운

황규호 사장, 창명해운 이경재 회장, 장금상선 정대순 사장, 마샬아일랜드 한국대표부 김영민 대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박범식 전무, 한국조선협회 한장석 부회장 등을 비롯한 해운·조선업계 및 단체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국도선사협회 해운전문인력 양성 장학금 전달



한국도선사협회(회장 송정규)는 6월 28일 오후 한국해양대학교 본부동 3층 집견실에서 2010학년도 1학기 장학증서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도선사협회 송정규 회장은 협회의 '글로벌 해운전문인력' 장학생으로 선발된 한국해양대 이원우(4년·해사수송과학부) 김겸원(4년·해사수송과학부) 이말그내(4년해사수송과학부) 장유락(4년해사수송과학부) 등 4명의 학생에게 매월 200만원씩 1년간 총 9,600만원의 해외유학자금을 지원하는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한국도선사협회가 지난해 처음 신설한 이 장학금은 해외 명문대학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수학할 수 있는 유학비를 지원해 해운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명의 학생에게 4,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한국도선사협회는 지난 1996년부터 매년

한국해양대 재학생 10여명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국해기사협회 해상직 해기사 간담회 개최



한국해기사협회(회장 민홍기)는 지난 6월25일 해기사협회 회의실에서 해상에 근무하는 해기사를 초청, 협회 정책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여론수렴과 선상 현장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해기사 간담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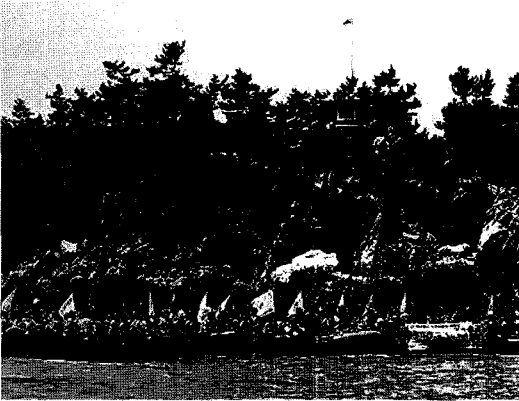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 및 임직원소개에 이어, ▲협회현황 및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과 주요 법령 개정사항 및 국제협약의 최근동향 ▲2011년도 대의원선거 및 투표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해기사협회의 발전적 방향모색, 해기선원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 및 선상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질의응답의 자유토론행식으로 진행했고, 토론 후 태종대 공원에 건립된 해기사 명예의 전당을 방문했다.

이날 주요내용으로는 ▲해외취업 해기선원의 장학제도 개선 방안 ▲해기선원의 세금감면 확대 방안 ▲해기사시험제도의 개선방안 ▲해기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방안 ▲협회와 선상 현장의 대화창구 다양화 등이 논의됐다.

한편 해기사협회는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행석(선장)외 13명이 참석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제12차 동해안 탐사 실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황규호)과 한국해양소년단강원연맹은 지난 12일~13일 양일간 청소년 및 지도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도 최남단 삼척시 원덕읍 고포항에서부터 강릉시 강릉항까지 이사부항로 항해체험과 해양환경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하는 제12차 동해안 탐사를 실시했다.

삼척시의 후원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1500년전 지금의 울릉도·독도인 우산국을 정벌한 신라 이사부장군의 기상과 개척정신을 이어받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동해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해양강국을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해양소년단강원연맹은 "우산국을 정벌한 이사부 장군의 얼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진출 운동을 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켜 해양개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국해운조합

창립 48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이 7월1일 전현직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 대회의실에서 '제48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정유섭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조합이 반세기에 가까운 역사를 거쳐 연안해운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구성원 모두의 땀과 열정이었다"고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연안해운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 수행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운송수단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연안해운이 당면한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국내 물류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안해운 업계와 조합 임직원이 힘을 모아 핵심적인 사안들을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한국해운조합은 내항해운 발전에 기여한 유관기관 및 단체 인사 31명과 조합 장기근속직원 20명에 대해 이사장 감사장 및 공로패를 수여하고 전국 14개 지역 총 78개 업체 81명의 장기근속 선원에 대하여 회장 감사장을 본지부별로 시상했다.

해양문화재단

제5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시상식 열려

(재)해양문화재단(이사장 최낙정)이 주최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제5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시상식이 지난 7월6일,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되었다. 해양사진대전 시상식에는 국토해양부 최장현 차관, 한국해운조합 정유섭 이사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용우 이사장



을 비롯한 해양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해양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올해 해양사진대전에는 총 1,993점이 접수된 가운데 대상 수상작인 <인천대교 야경>은 해양도시의 발전상을 완벽한 구도와 색감의 대비로 표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낙정 이사장은 시상식 이후 서울 메트로 미술관에서 진행된 개막식에서 “해양사진대전은 21세기 우리시대의 화두인 바다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수상작품을 통해 많은 분들이 바다를 더욱 가까운 문화적 소재로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수상작품은 오는 13일까지 경북구역 서울 메트로 미술관 1관에서 전시된다. 서울 전시 후에는 포항, 부산, 울산, 제주, 인천, 광주 등을 돌며 전국 순회전시가 이루어진다. 이 전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무료로 진행되고 자세한 일정은 해양문화재단 홈페이지(www.ocf.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바다를 조금 더 친근하게 만나고, 즐기게 하자’는 취지에서 2006년 시작된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은 올해로 5회를 맞은 가운데 매년 참가 작품 수가 늘고 있고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하

고 있는 대표적인 사진공모전이다. 해양사진대전은 그동안 해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해양과 관련된 시각적 콘텐츠 확보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해양문화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오염사고 방제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용우)은 해양경찰청, 해양연구원과 합동으로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방제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한국방송광고공사 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경찰청, 해양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등 방제전문가 총69명이 참석했으며,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현장실행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 공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였다.

주요발표 및 토의사항은 △대규모해양오염사고 대응긴급방제전략(해양경찰청 김영환 과장) △대형해양오염사고 민·관 통합 방제지휘체제 발전방향(한국해양대학교 윤종휘 교수) △민간방제활성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역할(공단 허기남 팀장) △최근 국제적 방제시스템 변화와 발전방향(해양연구원 이문진 박사)에 대한 주제발표 및 방제관련 분야별로 분임토의를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공단의 허기남 방제기획팀장은 “워크숍을 통하여 공단-해경-해양연구원간 상호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